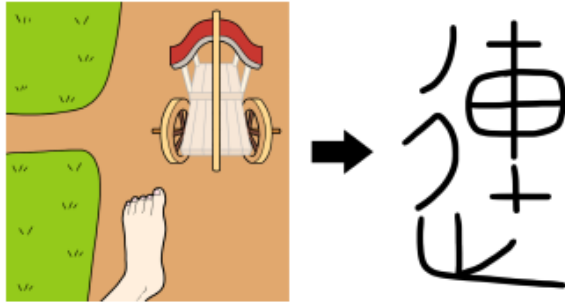


4(2)  
-  
51

회의문자①



連

이을 련

連자는 '잇달다'나 '연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連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車(수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車자는 짐이나 사람을 싣던 수레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수레를 그린 車자에 辵자를 결합한 連자는 길 위로 수레가 다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連자는 본래 사람이 끌던 인력거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잇달다'나 '연속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길에 인력거가 연이어 다니는 모습에서 '연속하다'라는 뜻이 파생된 것이다.

連

금문

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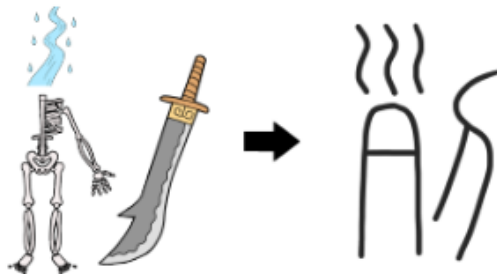
소전

連

해서

4(2)  
-  
52

회의문자①



列

벌릴 렬

列자는 '벌이다'나 '진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列자는 𠂔(부서진 뼈 알)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사람이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列자의 소전을 보면 𠂔자 위에 水(물 수)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뼈를 물에 씻는다는 뜻이다. 고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숲에 버려 썩게 한 후에 이를 수습해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까 소전에 있는 水자는 흩어졌던 뼈조각을 모아 물에 씻어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刀자가 더해진 列자는 분리된 뼈조각을 수습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列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뼈조각을 수습해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벌이다'나 '늘어서다', '순서를 매기다', '진열하다'와 같은 뜻을 갖게 된 것이다.

列

소전

列

해서

4(2)  
-  
53

회의문자①



錄

기록할  
록

錄자는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錄자는 金(쇠 금)자와 叅(새길 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叅자의 갑골문을 보면 보자기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는 叅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염색용 염료를 천에 넣고 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염료는 주로 옷감에 색을 들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한번 염색된 천은 오래도록 색이 유지된다. 그러니 錄자는 옷감에 들인 색이 오래도록 남아있듯이 쇠에 글을 각인하여 보존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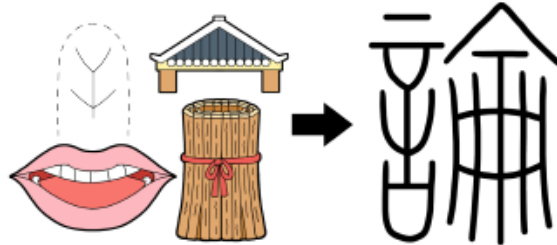
소전

錄

해서

4(2)  
-  
54

회의문자①



論

논할 론

論자는 '논하다'나 '논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論자는 言(말씀 언)자와 論(둥글 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論자는 죽간을 둥글게 말아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둥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둥글다'라는 뜻을 가진 論자에 言자를 결합한 論자는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논하다'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論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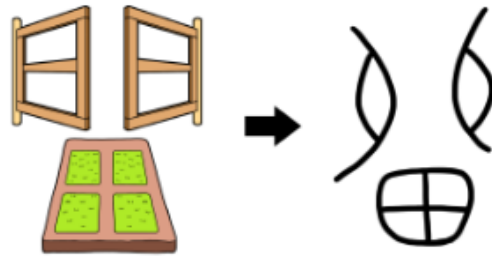
소전

論

해서

4(2)  
-  
55

형성문자①



畱

머무를  
류

畱자는 '머무르다'나 '지체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畱자는 田(밭 전)자와 卯(토끼 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卯자는 '토끼'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卯자의 옛 글자인 卯(지지 유)자가 '유'라는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畱자는 卯자가 발음요소로 쓰여 농사지을 땅이 있으니 그곳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畱

금문

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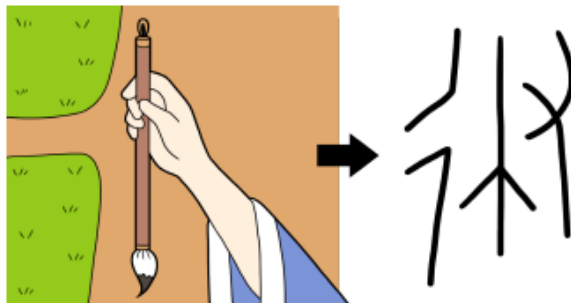
소전

畱

해서

4(2)  
-  
56

회의문자①



律

법칙 룰

律자는 '법률'이나 '법칙', '법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律자는 律(조금 걸을 척)자와 聿(붓 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律자는 '법령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래서 律자에 쓰인 聿자는 '법령을 만들다'를 뜻하고 律자는 '널리 보급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고대에는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면 방을 불이거나 대중 앞에서 널리 공포했다. 律자에 '음률'이라는 뜻이 있는 것도 법령을 공포하며 읽는 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律

갑골문

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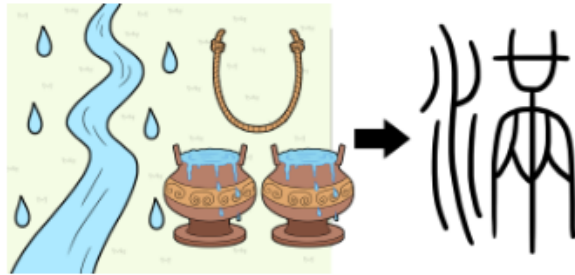
소전

律

해서

4(2)  
-  
57

회의문자①



滿

찰 만(·)

滿자는 '가득 차다'나 '가득하다', '풍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滿자는 水(물 수)자와 滿(평평할 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滿자는 물이 가득 찬 두 개의 항아리를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滿자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그린 滿자에 水자를 더해 물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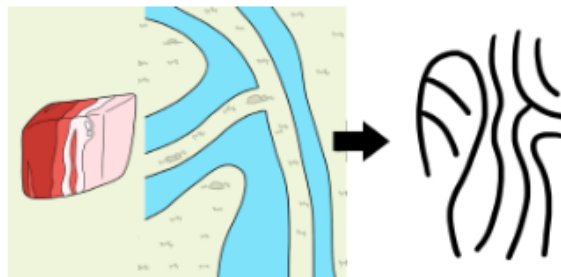
소전

滿

해서

4(2)  
-  
58

회의문자①



脈

줄기 맥

脈자는 '줄기'나 '혈관', '맥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脈자는 月(육달 월)자와 脈(물갈래 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脈자는 물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여러 기관으로 피를 운반하는 줄기를 말한다. 그러니 脈자는 혈관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脈자는 사람의 혈관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줄기가 서로 연결되거나 얹혀있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문맥(文脈)'이라고 하면 글의 성분이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고 '맥락(脈絡)'은 사물이 이어져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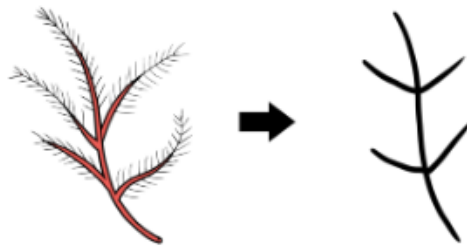
脈

소전

脈

해서

상형문자 ①



毛

터럭 모

毛자는 '털'을 뜻하는 글자이다. 毛자는 본래 새의 깃털을 그린 것으로 금문에 나온 毛자를 보면 양 갈래로 뻗어있는 깃털이 𦏧 표현되어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毛자는 새나 사람, 짐승의 털을 포괄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심지어 털처럼 보이는 것까지 毛자가 쓰이고 있어 사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상용한자에서는 毛자가 부수로 지정된 글자는 단 1자밖에 없지만, 부수 이외에 글자에서는 모두 '털'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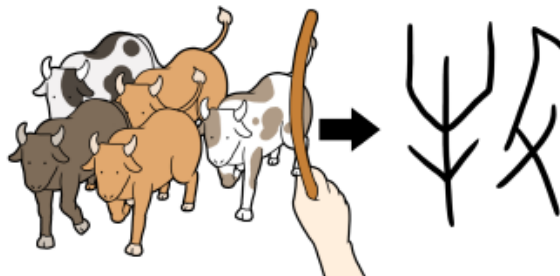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牧

칠[養]  
목

牧자는 '(가축을)기르다'나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牧자는 牛(소 우)자와 攴(칠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攴자는 손에 몽둥이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치다'나 '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 牧자는 풀어 놓은 가축을 우리로 몰기 위해 회초리를 휘두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牧자는 본래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을 기르던 사람을 뜻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牧자는 백성을 잘 이끌고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다스리다'나 '통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